



로스리오 한화행 초읽기
용병 전업포수 가능성은?

3면

프로농구 경기 결과	19일
▶ 전주전력 94 : 76 kt	
프로배구 경기 결과	19일
▶ 대한항공 3 : 0 우리카드	
▶ GS칼텍스 3 : 0 흥국생명	

600홈런+2000안타 : 1 한·일 통산 600홈런-25 2 최단기간 2000안타-140 마흔 살 이승엽의 무한도전



올림픽축구대표팀의 주전 골키퍼 김동준(오른쪽)이 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그의 소속팀 성남FC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신태용호 수문장' 김동준 그의 활약이 반가운 성남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2016 아시아 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 출전한 한국올림픽대표팀은 조별리그 C조 2경기에서 7득점·1실점을 기록했다. 상대팀들이 비교적 약체이긴 했지만, 몇 차례 실점위기에 집중력을 잃지 않은 점은 고무적이다.

조별리그 1·2차전에서 올림픽대표팀의 골문은 김동준(22·성남FC)이 지켰다. 연세대 출신의 김동준은 성남FC에 우선지명선수로 선발됐지만, 아직까지 프로 데뷔전은 치르지 못한 상태다. 올림픽대표팀에는 이창근(부산 아이파크), 구성용(군사도령 샤프로) 등 프로 경력을 지닌 골키퍼들이 있지만, 신태용 감독은 김동준을 중용하고 있다. 김동준은 신 감독의 기대대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평가전 때부터 수비조직력에 약점을 드러냈던 올림픽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2-1 승)과 예멘(5-0 승)을 상대로 한 조별리그 1·2차전에서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김동준의 선방 덕분이다.

성남으로선 김동준의 활약이 반갑지만 하다. 성남은 지난해 말 주전 골키퍼 박준혁(28)의 군 입대에 따라 새로운 주전 골키퍼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성남 김학범 감독은 전남 순천에서 진행 중인 동계전지훈련에서 육식을 가리고 있다.

아직까지 소속팀 훈련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못한 김동준에게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을 겸한 이번 대회 참가는 자신의 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성남 관계자는 "아직 팀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인이기 때문에 기량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올림픽대표팀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신을 여필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구단 입장에서도 김동준의 활약이 반가를 수밖에 없다"며 미소 지었다.

정재욱 기자 stop@donga.com



삼성 이승엽이 만 40세인 2016년 또 한 번 대기록에 도전한다. 최단기간 2000안타와 한일 통산 600홈런이라는 2개의 대기록에 안타 140개와 홈런 25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승엽이 지난해 KBO리그 통산 400홈런을 달성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아직은 전설이라는 표현에는 한참 모자란다. 한 없이 부끄러운 비유다. 그러나 선수로 그라운드를 떠나는 순간에는 꼭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기록과 성과를 이뤄야 한다."

만 40세가 된 이승엽(삼성)이 겨우내 쉬 없이 개인 훈련을 하며 거울 앞에서 배트를 휘두른 이유다. 이미 '국민타자'라는 명칭이 상징하듯 최고의 명예와 부를 거머쥐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후회 없이 떠나고 싶다"는 말을 지키기 위해 20대 선수들 못지않은 훈련을 소화했다. 여기에는 또 "팀이 예년에 비해 극복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 동료 선수들과 힘을 모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상에 서고 싶다"던 그의 굳센 의지도 담겨있다.

이승엽은 이미 '기록의 사나이'이지만, 2016년에는 크게 의미 있는 두 가지 새로운 이정표에 도전한다. 지난해 개인통산 10번째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뒤 "우리 사회에는 많이 힘겹고 힘든 40대 분들이 많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다"고 한 말을 지키기 위한 '약속의 여정'이기도 하다.

첫 번째는 KBO리그 최소경기 2000안타다. 이승엽은 일본에서 뛰 8년을 합치면 비공식이지만 이미 개인 통산 2000안타를 넘어섰다. 한국에서 13년 동안 1880안타, 일본에서 686안타를 쳐 2546안타를 기록 중이다. KBO리그 통산 2000안타까지는 140개가 남아있다. 이를 넘어서면 역대 6번째 2000안타 타자가 된다.

주목할 부분은 속도다. 이승엽은 홈런타자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안타를 뽑아낸 페이스는 다른 2000안타의 주인공들을 압도한다. 2013시즌과 2014시즌 연속해서 156안타를 친 만큼, 올해 2000안타 돌파가 유력해 보인다. 지금까지는 양준혁(은퇴)과 이병규(9번·LG)가 15시즌 만에 2000안타를 넘어서 최단시즌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장성호(은퇴)와 홍성훈(두산)은 17시즌, 전준호(NC 코치)는 18시즌 만에 2000안타를 기록했다. 경기수로는 1629경기를 소화하고 있어 이 부문 최단 기록인 이병규의 1653경기에 뒤질 전망이지만, 홈런타자로서 최소시즌에 2000안타를 돌파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가 크다.

두 번째는 한일 통산 600홈런이다. 지난해 KBO리그 통산 400홈런을 돌파한 이승엽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416개, 일본에서 159개의 홈런을 터뜨렸다. 올 시즌 25개를 치면 한일 통산 600홈런 고지에 오른다.

2개 리그를 합성한 까닭에 공식기록은 아니지만, 600홈런을 한 시즌 162경기를 치르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지금까지 8명만이 달성한 영광스러운 타이틀이다. 특히 그 중 약물복용 의혹을 받고 있는 알렉스 로드리게스, 새미 소사, 배리 본즈를 빼고 나면 베이브 루스(714개), 윌리 메이스(660개), 행크 애런(755개), 켄 그리피 주니어(630개), 짐 토미(612개)까지 5명의 전설적 타자만 남는다. 일본프로야구에서 600홈런 타자는 압축배트 시대에 뛰었던 오 사다하루(868개), 노무라 가쓰야(657개)뿐이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썬리 사태'와 관련한 방송 제작진의 무지함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진은 썬리(왼쪽에서 세 번째)가 속한 걸그룹 트와이스의 공연 모습.

대만기 쥐어준 방송사 썬리 사태엔 나몰라라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멤버 썬리(16) 사태와 관련해 일부 방송사의 무지한 태도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썬리는 지난해 11월 MBC 예능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마리텔) 인터넷 생방송에서 제작진이 준비한 대만기를 흔들었다. 이 모습은 현재 중국과 대만 사이의 민감한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제작진이 당시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방송사와 제작진은 사태가 심각성을 더해가는 동안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제작진은 19일 이에 관한 스포츠동아의 문의에 방송사 홍보팀을 통해 "멤버들에게 국기를 전달한 것은 출신 지역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을 뿐이다. 홍보팀 관계자는 "제작진의 의도는 썬리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JYP)의 입장에 일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JYP는 이날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는 제작진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송사 역시 엇비슷한 실수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마리텔'과 비슷한 시기에 KBS 2TV '연예가중계'는 트와이스를 소개하면서 썬리 이름 위에 태극 국기를 이미지로 처리했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와 팬들 사이에서 잠깐 논란이 됐지만 방송사나 JYP 모두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영도 책임프로듀서는 19일 "제작진의 명백한 실수였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잇단 상황은 한류의 확산과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외국인 연예인을 불러들이는 환경에서 빚어진 어처구니없는 실수이자 무지의 결과라는 시선이 많다. 또 해당 연예인들의 나라와 관련한 다양한 특수성과 문화적 차이 등에 대해서도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이 더욱 면밀한 이해를 담보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세심한 제작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숨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대리운전- 전화나 앱으로 콜하는 구닥다리 방식을 던져 버렸다

YTN-TV 방영으로 성공사업 입증!!

YTN

YTN에 대리운전 호출시스템에 최첨단 NFC 기술력이 결합된 본 NFC 대리운전 스마트콜이 소개, 방영되었습니다

세계유일 독보적 기술 NFC 터치방식 스마트콜

대리운전 전국 대리점 대모집!!

5조원대 시장규모의 대박사업!! 1,990만원 투자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밤부터 동이 틀때까지 수익이 차곡차곡 - 평생 월급같이 안정된 수익, 무경험 일반인도 대박창업

대리운전비 수수료 10%가 평생 내통장으로 따박따박 - 스마트콜 대리점 사업

- ◆ 대리운전 콜 방식으로는 세계최초, 세계유일의 NFC 전자태그 방식 (주)판타블로스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시스템 스마트콜(Smart Call)은 전화 걸거나 인원이 어플을 찾아 심행시키고 누를 필요 없이 앱스 테이블, 출입구 등에 부착된 NFC 태그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대리운전이 자동 호출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이 회사는 그동안 광고없이 입소문과 소개만으로 연결된 대리점주들이 한결같이 안정된 고소득을 올리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본격적인 전국 대리점 구축에 나섰다. 전국 통틀어 오직 250개 지역에서만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 ◆ 전업, 부업,투잡 // 無노동, 無영업, 無경험, 無기술 OK

최근, 서울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스마트콜 대리점을 개설하고 운영 중인 대리점주 김모(39)씨는 스마트콜 사업에 대해 호평 일색이다. "이제, 두달 남짓되었는데 수익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저는 별도로 일 할게 없어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일과 병행해서 할 수 있고 대리운전 사업으로 올린 수익은 고스란히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라며 사업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한다. 이 사업이 특히 좋은 점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 부자유, 어두워질 때부터 해 뜰 무렵까지는 내가 놓고 있어도 자고 있어도 끊임없이 차곡차곡 돈을 벌어주는 사업아이템이라는 점이다. 한편 태그부착 및 설치 후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장점도 있다. 대리점 개설을 하는 사람에게는 선착순으로 원하는 지역을 부여하고 있어 먹거리 타운, 유출가가 많은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서두르는 편이 좋다고 관계자는 귀뜸한다.

- BM특허출원 10-2015-0006745 전자태그 호출 - 앱스에 부착된 NFC 태그에 내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자동 호출
- 본사에서 50곳대의 우수 가맹점(식당, 주점, 유흥업소) 심의 및 태그부착 완료
- 대리운전 비용의 10%수익
- 20,000원 요금 시 대리점 료 2,000원

→ 하루 한 가맹점에서 최소 2시간 콜이 되어도 2,000원 + 2회 + 50곳의 가맹점 * 30일 = 월수익 600만원

상권 좋은 먹자 골목에 위치한 가맹점수를 많은 경우는 한 곳에서만 하루 3-4콜 이상 오는 경우도 비밀비해하고 합니다

사업문의 02)470-5122

NAVER 스마트콜

www.nfccall.co.kr